동국대, 대학생 전법으로 '탈북민 포교' 새 장

첫 탈북 대학생 불교동아리 창립
동국대 등 24개 대학 53명 참여
돈관 스님 지은 '無이판사판' 명명
제120회 지역불자육성장학 전달
돈명 · 수불 스님, 황경환 회장 기부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9월 23일 24개교 53명의 북한 출신 대학생이 모인 불교동아리 '무이판사판'을 창립하고 장학금을 수여했다.

동국대를 중심으로 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연합 불교동아리가 처음으로 창립됐다. 그간 불모지에 가까웠던 북한 출신 주민 포교에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는 9월 23일 서울캠퍼스 정각원에서 '북한 출신 대학생 불교동아리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무(無)이판사판'으로 명명된 북한 출신 대학생 연합 불교동아리는 동국대를 중심으로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24개 대학 53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창립됐다. 초대 동아리 회장은 김지일(동국대 회계학과) 학생이 맡았고 지도법사는 정현 스님, 지도교수는 이해님 미래융합대학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가 각각 위촉됐다.

동국대에는 현재 북한 출신 재학생이 30명이 이르고, 학교는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부터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지난 8월 23~25일에는 16개교 23명의 북한 출신 대학생들과 함께 독도·울릉도 탐방을 진행하며 대학생 전법을 위한 기틀을 다지기도 했다.

첫 북한 출신 대학생 연합 불교동아리인 만큼 동아리 명칭도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직접 지었다. 돈관 스님은 격려사에서 "오늘 동아리 창립의 큰 목적은 여러분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것"이라며 "어디에 머물더라도 항상 주인의식을 갖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어 달라"고 격려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동국대 내 동아리방을 준비 중이다. 자주 동아리방에 들러 교류하며 좋은 인연을 맺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일 '무이판사판' 회장은 "동국대는 불교의 정신을 토대로 지혜와 자비, 평화를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해 왔다"면서 "'무이판사판'은 이 같은 철학과 정신을 계승하고 학생들이 삶과 진로를 고민할 때 깊이 있는 통찰과 자비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창립법회 이후에는 '제120회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도 진행됐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은해사 회주 돈명 대종사, 안국선원장 수불 대종사, 황경환 ㈜진양유조선 대표이사가 각각 1000만원·3000만원·2000만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금은 '무이판사판' 회원 53명 전원에게 각각 100만원 씩 전달됐다.

이나영(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2학년) 학생은 "북한에서 태어나 중학교 문턱조차 넘기 힘들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은 결코 혼자의 힘만으로 이뤄진 일이 아니다"면서 "동국대에서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더 많은 사랑과 희망의 씨앗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20주년 동국대일산병원·한방병원 "동체대비 구현"

9월 23일 개원 20주년 기념식
돈관 스님 등 300여 명 참석
'의학동국' 발원…2005년 건립
양한방 의료시스템 처음 구축



동국대 일산불교병원과 일산한방병원은 9월 23일 개원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동체대비 사상을 구현하는 도량이 될 것을 발원했다.

개원 20주년을 맞은 동국대일산병원과 동국대일산한방병원이 약사여래의 발원을 되새기며 중생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병원이 될 것을 다짐했다.

동국대 의료원 산하 일산불교병원(원장 백용해)와 일산한방병원(원장 김동일)은 9월 23일 병원 5층 대강당에서 개원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자비를 품다, 치유를 담다, 원력을 심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기념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윤재웅 동국대 총장, 김기유 법인 이사, 정각원장 제정 스님,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지정학 법인 사무처장, 이해원 의료원장, 이동환 고양시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과 일산한방병원은 '의학동국'의 새로운 100년을 구현하기 위한 염원을 담아 당시 이사장이었던 영허 녹원 대종사의 원력으로 건립이 추진됐다. 1만여 불자와 동문들이 건립기금 800여억 원을 마련했고 2005년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에 병원을 개원했다.

개원 이후 동국대 일산불교병원과 일산한방병원은 국내 처음으로 양한방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연건평 2만 8000평에 1000병상을 갖춘 최첨단 병원으로 발전했다. 지난해에는 수도권 병원 최초로 차세대 방사선 수술 장비 'ZAP-X'를 도입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켰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치사를 통해 20살 청년이 된 동국대일산병원과 일산한방병원이 부처님의 동체대비 사상을 구현하는 도량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돈관 스님은 "다시 약사여래 대원을 되새기며 모든 의료진이 일심으로 정진해달라"고 격려했다.

동국대 일산병원·일산한방병원 원장은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전하는 병원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해원 의료원장은 "세계적 수준의 의술과 따뜻한 불심(佛心)으로 국내 유수의 병원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환자와 지역사회를 향한 자비의 의료를 실천하며 구성원 모두가 화합 속에서 성장하는 참된 치유의 도량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중일 기자

현대인 생활 맞춰 "이제 양력 법회 시대"

조계종 85차 포교종책 연찬회
선지 스님 "형식·내용 변화"
'표준 모델' 개발·보급 제안



양력 중심으로 변화한 현대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음력 위주의 사찰 법회도 이제는 양력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초하루, 보름, 재일 등의 음력 법회는 매월 일자가 달라지는데다 평일에 봉행될 경우 직장인이나 젊은이들의 참여가 어렵고, 고령자 중심으로 이뤄져 지역사회와 연계성도 떨어지는 단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부장 정무스님)는 9월 24일 서울 아미드호텔 2층에서 '제85차 포교종책 연찬회'를 개최했다.〈사진〉 죽림사 주지 선지 스님(조계종 교육아사리)은 '법회 사례와 현대적 법회 제안-젊은 세대 맞춤형 중심으로' 발제에서 "양력 법회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천적 교화 전략"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스님은 "양력 기준 정기법회는 가족단위의 신앙생활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면서 "나아가 종단이 양력 법회를 선언하면 교구와 말사 및 신행단체로 이어지고 지역사회에도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법회 내용과 방법, 설법 등 측면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상주 출가 대중이 적고 사세가 약한 사찰의 경우 매주, 격주, 월 1회 등 여러 주기로 법회를 열 수 있다"면서 "설법 중심의 법회가 바람직하지만 삶의 활력을 주는 선명상, 기도 정진 중심의 법회, 경전을 공부하는 법회, 소통과 나눔의 법회, 생태계 법회 등 여러 가지 콘텐츠로 구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종단 차원의 '양력법회 표준 운영 모델' 개발·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포 붓다정사 주지 지원 스님은 '법회의 중요성과 양력법회의 필요성'에서 양력 정기법회를 주말 법회와 주중 법회로 구분하고, 각각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찬회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각 사찰에서 양력 법회 활성화를 적극 검토하고 바람직한 모델을 발굴하고 널리 전파함으로써 법회가 신도들의 삶 속에 더욱 가까이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생명나눔, 불암사 산사음악회 개최

10월 18일, 생명존중 실천
생명나눔대상 후보자 공모

가을의 풍성한 정취와 생명나눔의 정신을 함께하는 음악회가 열린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는 10월 18일 오후 1시부터 남양주 불암사에서 '제16회 불암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이익선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의 사회로 불암사 합창단의 공연으로 막을 열고 마하무용단을 비롯해 배아현, 최우진, 비니쌤, 주권기 등 초대 가수들이 출연한다.

이날 음악회에는 국화축제·불암사 신도회 먹거리 장터·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등도 함께 진행된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학인스님과 불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환자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삶의 희망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한편, 생명나눔은 오는 10월 17일까지 '제4회 생명나눔대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추천 부문은 대상과 홍보상, 생명상, 나눔상 등 4개 부문이다.

추천 양식은 생명나눔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우편 및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 홍보상·생명상·나눔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수상자 발표는 11월 7일이며, 시상은 오는 11월 22일 제15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02-734-8050

임은호 기자

